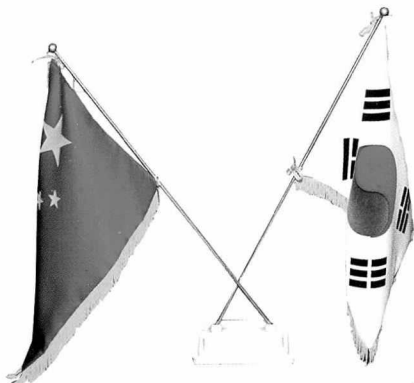


한중교류회의

한·중 손잡고 세계시장 넓히자



한·중인쇄협회의 협정에 따라 대한인쇄문화협회의 초청으로 중국 인쇄기술협회 대표단이 지난 8월30일부터 7박8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 양국 인쇄문화 발전을 위한 교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중국 대표단은 무문상 중국인쇄기술협회 이사장과 김의천 신문출판사 차장, 고복성 중국인쇄집단공사 사장, 장금요 중국인쇄기술협회 비서장, 이영립 월간 중국인쇄 주필 등 5명으로 구성됐다.

한중인쇄문화교류회의는 지난 9월1일 오전 11시 인쇄문화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교류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한용근·이일우 부회장, 박종갑·정용식 감사, 오세익 전무이사가, 중국 측에서는 대표단 5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민재기 회장의 주재로 양국 인쇄업체의 진출방안과 인쇄물 및 인쇄기기 수출확대 방안, 인적 교류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양측 대표들은 상호간 긴밀한 협조로 이익이 부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교류회의를 마친 후 중국 대표단은 이일우 부회장의 안내로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보진재(대표이사 김정선)를 방문, 공장을 견학하고 보진재가 마련한 오찬에 참석했다. 오후 6시에는 대한인쇄문화협회가 세종호텔에서 마련

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재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교류는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점진적이며 실현 가능한 내용과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결실을 얻고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인쇄기술이 탄생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종이와 금속활자를 발명한 인쇄종주국인데도 아직까지 세계 인쇄역사는 서양의 인쇄술만 강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으므로 양국의 인쇄협회가 합심 협력하여 세계 인쇄역사를 바로잡고 새롭게 조명하는 노력을 펼치자”고 역설했다.

이어 무문상 이사장은 답사를 통해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인쇄물 수출이 많고 인쇄기자재의 수출은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물량이 많으므로 교역이 앞으로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하자”면서 “오는 10월 상해에서 개최되는 인쇄기자재전시회에 많이 참석하여 중국인쇄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의 시간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환영만찬에는 광득룡 인쇄연합회 회장 등 내빈과 인협 이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민재기 회장은 무문상 이사장에게 한중인쇄문화 교류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무문상 이사장은 박충일 인협 명예회장에게 역시 공로패를 전달했다.

연도	총투자건수	총투자액	연도	총투자건수	총투자액
1994	3	366	1999	0	15
1995	0	38	2000	1	140
1996	4	702	2001	9	881
1997	2	98	2002	7	1384
1998	3	421	계	29	4045

중국 투자현황(2002년 말 현재)
(단위 : 미화 천달러)

대중국 인쇄물 수출실적 : 390만8천 달러(2002년 말 현재)
대중국 인쇄물 수입실적 : 552만 달러
대중국 인쇄기자재 수출실적 : 2503만4천 달러
대중국 인쇄기자재 수입실적 : 877만8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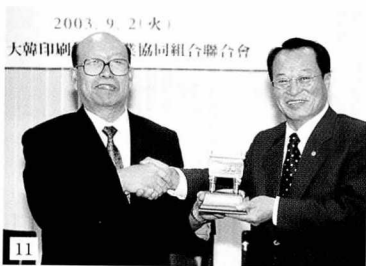
1. 공항 환영식 모습
 2. 교류회의에 앞서 양측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3. 교류회의 후 양측 대표단 기념촬영
 4. 인협 주최의 환영 만찬 모습
 5. 무문상 이사장이 박충일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는 모습



6. 민재기 회장이 무문상 이사장에게 공로패 증정
 7. 보진재를 방문하여 김정선 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8. 한국문원을 방문한 후 기념촬영
 9. 동양잉크를 방문한 후 기념촬영
 10. 인쇄연합회 주최 환영식 모습



중국 대표단은 9월2일 한용근 부회장과 유상태 이사의 안내로 경기도 안성의 한국문원(대표이사 이상룡)을 방문하여 공장을 돌아보는 한편 한국문원 주최의 오찬에 참석했다. 또 오후에는 평택의 동양잉크를 방문하여 잉크제조 공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오후 5시에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광득룡)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했다. 3일에는 국회를 방문, 배기선 문화관광위원장으로 부터 무문상이사장과 김의천처장이 공로패를 받았으며, 오후 5시에는 서교호텔에서 개최된 제15회 인쇄문화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또 5일 저녁에는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고수곤)이 국립극장에서 주최한 환송 만찬에 참석한 후 6일 오전 출국했다.



11. 광득룡 연합회장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무문상 이사장
 12. 김직승 전 연합회장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무문상 이사장
 13. 이연지 흥일문화인쇄사장이 캘린더를 전달하고 있다
 14. 배기선 위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는 무문상 이사장
 15. 서울조합 주최의 환송만찬 모습

